

대구 스테이크 대회



스테이크 대회 광경

1985년도 전반기 대구 스테이크 대회가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수성 와드에서 개최되었다.

부산 광주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의 감리하에 개최되었다.

25일에 있었던 성인 모임의 주제는 "순종과 희생은 하늘의 축복을 가져옴" 이었는데, 한 인상 지역 대표는 "발전된 하나님의 왕국은 조직 강화 교육 훈련, 반복 연습을 통해 이룩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26일의 일반 총회의 주제는 "항상 기도하여 승리자가 되라"(교성 10:5)였다.

박 원걸 스테이크 부장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할 수 있어야 하며, 감사한 마음과 깨어 있는 상태로 기도할 것을 회원들에게 강조하였다.

한 인상 지역 대표는, 경전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이며, "하나님과 백성간의 역사"라고 하였다. 간증과 기도와 축복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칠 수 없음을 깨우쳐 주었고, 성도들 모두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일깨워 주었다.

신권 승진과 역원 변경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로: 최 문수 형제, 김 도연 형제, 김 상철, 형제, 이 황희 형제, 김 창호 형제

○대제사: 이 호중 형제

○고등평의원: 이 호중 형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제1보좌에 김정애 자매, 제2보좌에 김 명미 자매, 서기에 장 미경 자매

○스테이크 초등학교 제1보좌에 서 경숙 자매, 제2보좌에 신 현순 자매, 서기에 신 현향 자매

이날 특별 손님으로, 제임즈 엠 하퍼 부산 선교부장 내외가 초대되었으며, 구미, 경주, 김천, 포항의 시와 지부에서도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인원 약 450여 명. *

목포 와드 일손 돕기 모임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목포 와드 회원들은 조 용태 감독과 함께 전라남도 무안군 일도읍 지장1리 안성진씨의 보리밭 1200여평의 보리 베기와 탈곡 작업을 하였다.

일하는 중에 주민들과 우정을 나누었으며 한편으론 교회도 소개하였다. *

강서 스테이크 소년단 발대식 및 활동 보고

1985년 3월 23일 오후 3시부터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에서는 스테이크 소년단 발대식이 거행되었다.

이 모임에는 강서 스테이크 부장단을 비롯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국민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초등학교 소년단은 교회내에서 불꽃반 및 찢꼬리반 활동은 물론이고 개인 발전 활동, 봉사 활동, 훌륭한 시민 훈련 그리고 야외 기능 활동도 하고 있다.

소년단 대장으로는 한 재국 형제, 김 동완 형제, 김 미현 자매 그리고 이 보숙 자매가 임명되었다.

20여명의 대원을 2반으로 나누어 매반과 파랑새 반으로 구성하였다.

3월 9일 첫 집회를 시작한 이들은 3월 16일에는 행주 산성에서 훈련 모임을 가졌으며 4월 28일에는 스테이크 대회에서 안내를 맡았다.

초등학교 소년단원은 다음과 같은 규율을 지킨다. ○자유를 사랑한다. ○인류에 봉사한다. ○미쁘고 정직하다.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 ○천연 자원을 보호한다. ○열심히 배운다. ○생활을 즐긴다.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과 가족적인 상속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

이들은 소년단은 "인류에 대한 봉사가 곧 하나님에 대한 봉사이다"라는 표어 아래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

활동에 참여한 소년단원들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

1985년도 후반기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가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서 스테이크 쉼터에서 최 옥환 장로의 감리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의 토요 저녁 모임에서 최 옥환 장로는 “주님의 속죄와 그의 공의와 자비의 원리는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하였고 초기 말일성도들이 보인 신앙의 의지를 본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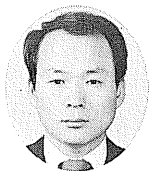
또한 김 창선 스테이크 부장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 생활을 하여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말일성도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켄슨 서 선교부장은 주님이 지상에 내려온 목적은 복음 전파였음을 상기 시켰으며 선교사업에 모든 회원의 참여를 당부하였다.

현재 스테이크내의 활동 중인 복음 선교사는 18명이며 이번 대회를 통해 85년도 목표인 44명을 기필코 실천하겠다는 강한 결의를 다짐하기도 했다.

참석 인원 745명. *

장 용택 감독 전남 도지사 표창장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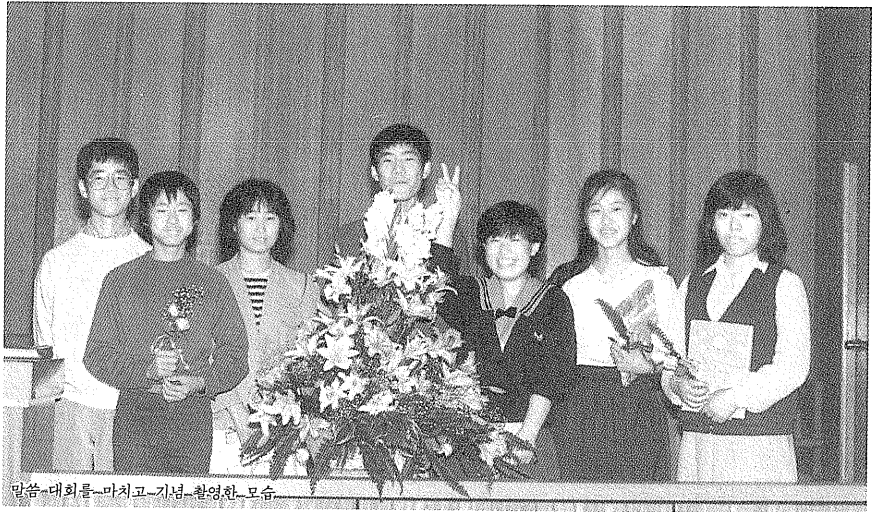
광주 스테이크 여수 와드 감독으로 수고하고 있는 장 용택 감독은 1985년 5월 3일 여수 시청 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장감독은 반장으로 봉사한지 1년만에 모범적으로 반을 운영하고 반원 상호간에 신뢰와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 자율 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게되었다.

그는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여수 봉강동 정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불우이웃 돕기에 앞장서서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듣고있다. *

성도의 빛/1985년 8-9월호

청남, 청녀 말씀 대회 및 등반 모임(서울 서 스테이크)



서울 서 스테이크는 5월 18일 아론 신권 회복 기념행사로 노량진 와드에서 말씀 대회를 가졌다.

최 동헌 부장의 감리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예선을 통과한 7명의 청남 청녀들은 열띤 경연을 벌였다.

“나는 신권이 있어요”와 “형제님 선교사가 되세요”란 2가지 주제로 말씀한 연사들의 말씀 내용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1등상은 시흥 와드의 김 희 자매가 차지하였으며 2등상은 봉천 와드의 한 정희 자매 그리고 3등상은 역시 봉천 와드의 신 승화 형제가 차지하였다.

한편 5월 27일에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수리산에서 등반 모임을 가졌다. *

복음 성가 경연 대회 (영동 스테이크)

지난 4월 22일, 서울 영동 스테이크 독신 성인회는 마천 지부에서 ‘복음 성가 경연 대회’를 가졌다.

영동 스테이크내의 9개 와드·지부에서 7개 조가 출연하고 80여 명의 독신 성인들이 지켜본 가운데 열린 이날의 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 ‘복음 성가 경연 대회’에서의 영예의 1등은 의상까지 갖추고 나와 ‘순례자의 노래’를 부른 둔촌 지부가 차지했고 2등은 천호 와드, 3등은 화양 와드와 마천 지부에게 돌아갔다.

2부에서는 성남 와드의 김 정옥 자매와 조 순정 자매의 입체적인 ‘형제를 위한 미용 강좌’와 ‘자매를 위한 미용 강좌’가 열려서 많은

형제·자매들의 관심을 끌었다.

영동 스테이크 독신 성인들은 '85년부터 매달 세째 토요일에 각 와드·지부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스테이크 독신 합동 모임을 갖고 있다. *

독신 성인들의 활동 모습



그림 그리기 대회 및 손님 접대 시범 모임

4월 27일 여수 와드에서는 와드 대회를 앞두고 전시회와 그림 그리기 및 손님 접대 시범 모임을 가졌다.

참여한 청년들은 과일과 여러 재료를 사용하여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으며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였다.

이날 정성상은 문 성자 자매, 알뜰상은 이 은미 자매가 각각 차지하였으며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는 조 윤경 어린이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참가한 전원에게도 기념품이 전달되었다. *

아론신권 회복 기념 말씀 대회 (서울 동 스테이크)



김 성구 형제

지난 5월 18일에 서울 동 스테이크 미아 와드에서는 청년회 주최로 아론신권 회복 156주년 기념 말씀 대회를 가졌다.

95명이 참석한 이 대회는 각 와드/지부에서 선발되어 올라온 형제, 자매들이 저마다의 솜씨를 겨루었다. 작년에 비하여 안정된 자세에서, 침착한 목소리와 차분한 어조로 변화있게,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말함으로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구 본동 스테이크 부장은 말했다.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잘 말할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작년에 최우수상을 탄 상계1와드의 김 수진 자매가 초청 연사로 참석하여 이채를 띠었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아래—

최우수상 : 김 성구 형제(상계1와드)
우수상 : 배 혜정 자매(상계2와드)
장려상 : 현 진우 형제(도봉 와드)
장려상 : 김 승희(자매(번동 와드)) *

1985년도 전반기 청주 스테이크 대회



스테이크 대회에서 말하는 황 충열 스테이크 부장(연단)과 최 육환 장로(오른쪽 끝)

청주 스테이크는 최 육환 장로의 감리로 4월 20일과 21일에 청주 스테이크 본부인 복대 와드에서 1985년도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20일(토요일)은 오후 4시부터 “희생과 헌납”이란 주제를 가지고 신권회 모임을 시작하였다.

이날 최 육환 장로는 십일조의 법이란 열 개의 사과중 기쁜 마음으로 한 개의 사과를 주님께 바치는 것이며 시간의 헌납도 중요하며 큰 축복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였다.

21일(일요일)은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마태 복음 7: 24-26)이란 주제를 가지고 대회를 거행하였다.

이날 황 충열 스테이크 부장은 “신앙을 튼튼한 토대 위에 세우지 않고 대중 위에 세운다면 실패할 것이다. 튼튼한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우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세우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스테이크 대회를 통해서 모든 회원이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고 말씀하였다.

역원 변경으로는 청주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였던 박

인자 자매가 해임되고, 그 후임에 이 봉순 자매가 부름을 받았고 8명의 장로가 새로이 탄생하였다. 참석 인원 약 560 여 명. *

“높은 산” 3호 발행 (대구 스테이크 중리 와드)

1985년 5월 20일 대구 스테이크 중리 와드 독신 성인 위원회에서는 문예지인 “높은산” 3호를 발행하였다.

본문 136페이지에 달하는 이책의 내용은 ‘말일성도의 문화’ ‘말일성도의 가정’ ‘말일성도 젊은이의 미래’ 그리고 ‘위대한 만남’ 등의 제목으로 지도자의 말씀이 실렸고 시, 수필, 노래, 간증, 사진 감상, 한시 그리고 유명한 시인과 소설가의 글이 실렸다.

특히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가 정리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역사’는 독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발행된 3호는 전호에 비하여 분량도 많을 뿐 아니라 내용도 풍부하고 정성이 깃들여진 책이다.

중리 와드 독신 성인들은 ‘높은 산’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